

크리스마스 '인증샷 맛집' 어디?... 유통가 '핫플' 쟁탈전

현대백, 더현대 서울 'H빌리지' '해리의 꿈의 상점' 테마로 꾸며
롯데백 '소망' 주제 빈티지감성 장식
신세계백 외벽에 뮤지컬무대 연출
파라다이스시티 '노란 호박' 트리로



지난해 신세계백화점 외벽을 장식한 미디어파사드. /신세계백화점



파라다이스시티 와우존 '호박 트리' /파라다이스시티

유통업체가 연말 특수를 겨냥해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단장에 나서는 모습이 다. 이색적인 테마와 거대한 규모의 크리스마스 장식부터 미디어 파사드, 형형색색의 조형물 등 다양한 인증샷 콘텐츠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진을 통해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포토프레스(Photo+Express)'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고객들의 발길을 끌어 '연말 특수'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압도적 스케일의 장식으로 집객 나선 백화점 업계

매년 연말 분위기를 주도하며 '인증샷 맛집'으로 변신하는 백화점 3사가 장식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웅장한 디스플레이와 실내 조형물 등 규모감을 자랑하는 백화점 내외부를 빛의 향연으로 물들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일 더현대 서울

5층 사운즈포레스트에 '해리의 꿈의 상점'을 테마로 한 'H빌리지'를 공개했다. 11m 높이의 대형 트리과 현대백화점 전 점포를 상징하는 16개의 상점과 시장, 6000여 개의 조명 등으로 이국적인 공방들이 모인 골목길을 구현했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3일 본점 외관에 불을 밝힌다. '소망'을 주제로 편지를 통해 안부를 전하던 시절의 빈티지한 감성을 비주얼로 풀어낸다. 화려한 장식에 생생한 스토리를 더하고자 정세랑 작가와도 손을 잡았다. 쇼윈도 역시 지난해보다 4개 늘려 총 9개를 마련했다.

신세계백화점도 '신세계 극장'을 테마로 뮤지컬 무대를 본점 외벽에 연출한다. 크리스마스 캐롤과 함께 반짝이는 회전목마, 밤하늘을 달리는 선물 기

차, 트리로 둘러싸인 아이스링크가 차례로 펼쳐지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선사할 계획이다. 11월 둘째 주경 본격 점등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 외관의 연말 장식은 2014년 건물 외벽에 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본격 도입한 이래로 해마다 인증샷 성지로 이름을 알려왔다. 특히 2021년부터는 광고판을 떼고 더욱 큰 규모의 미디어 파사드 장식을 도입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호텔업계, 서터본능 자극

호텔 및 레저업계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적극 강화하며 '연말 핫플' 쟁탈전에 나섰다. 인증샷을 불러 일으키는 각양각색의 트리는 물론 크리스마스

마켓, 퍼레이드 공연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예년보다 빠른 이달 초부터 '매지컬 크리스마스' 메인 콘셉트 하에 호텔 곳곳을 럭셔리한 성탄절 분위기로 장식한다. 특히 로비 중앙 와우존에 전시된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 작품을 크리스마스 트리로 탈바꿈한다. 작품 주위를 거대한 리스 형태의 트리로 감싸고 동화 속 산타 마을을 연상시키는 독일 메르클린의 모형 기차와 오너먼트를 배치해 화려함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내달에는 대형 광장 '플라자'에서 북유럽 산타 마을을 연상시키는 '산타 빌리지' 테마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크

로마 스퀘어'와 '아트가든'에서 크리스마스 테마의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하는 등 색다른 연말 콘텐츠를 연이어 공개한다. 특히 '아트가든'에 상영되는 미디어 파사드 스크린은 가로 약 95m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로 마법같이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무드를 만끽할 수 있다.

◆테마파크, 오감만족 콘텐츠로 고객 감동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테마파크 내 여러 공간에 인증 욕구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준비했다. '매직포레스트에 찾아온 겨울' 콘셉트의 '미라클 윈터' 시즌을 오는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정문 게이트와 로얄가든 입구를 크리스마스 리스, 솔방울, 리본 등으로 연출하고 정문 광장에는 5m 높이의 대형 트리를 설치한다. 테마파크 중심부의 로얄가든 분수대는 빛과 트리가 어우러진 일루미네이션 분수 트리 숲으로 재탄생한다. 이 밖에 퍼레이드 공연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레고랜드는 12월까지 겨울 시즌 운영에 맞춰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로 단장한다. 온 가족이 '추억샷'을 남길 수 있는 '메리 브릭스마스' 테마의 레고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oul.co.kr

현대백 대표에 정지영... 안정 속 변화 추구

총 40명 2024 정기 임원인사
홍쇼핑 대표이사에 한광영 내정
현대L&C 전무에 정백재 승진

현대백화점그룹은 사장 1명, 부사장 1명을 포함해 승진 17명, 전보 23명 등 총 40명에 대한 정기 임원 인사를 2024년 1월 1일부터 단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사 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에 비해 축소했다.

현대백화점 수장으로는 정지영 대표이사 사장이 내정됐다. 정 사장은 1963년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해 30여년 간 활동한 정통 '현대백화점맨'으로 통한다. 2012년 현대백화점 영업전략담당 상무를 지냈고, 2013년 현대백화점 울산점장 상무, 2015년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상무로 그룹을 이끌었다. 2018년에는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장 전무를 역임한 후 올해는 현대백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한광영

현대홍쇼핑 대표이사 부사장



정백재

현대L&C 대표이사 전무

화점 영업본부장 겸 영업전략실장 부사장을 지냈다.

한광영 현대홍쇼핑 부사장과 정백재 현대L&C 전무도 승진 인사에 포함돼 각 사의 신입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이번 정기 임원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안정 기조 속 미래 성장을 위한 변화 추구'다. 어려운 대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해 조직을 확장하기 보다는 안정 기조를 바탕으로 내실을 꾀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그룹의 미래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새로운 리더십 등을 두루 갖춘 미래지향형 인재를 핵심 포지션에 중용해 그룹의 지속 성장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중 현대백화점 대표와 임대규 현대홍쇼핑 대표는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KT&G, 신탄진 NGP 공장 생산능력 확대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 추가
36만 상자 보관 자동화창고 구축

KT&G가 '글로벌 톱 티어 도약' 과 전자담배 생산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 신탄진 NGP(전자담배) 공장을 확장했다.

KT&G는 전날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백복인 KT&G 사장 등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확장 기념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과감한 성장 투자와 기술혁신으로 NGP 사업을 글로벌 톱 티어 플레이어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KT&G 신탄진 NGP 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를 추가 도입해 총 8기의 설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최대 36만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도 구축해

NGP 사업 도약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KT&G는 혁신플랫폼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NGP 사업의 원활한 수요 대응을 위해 신탄진·광주공장 등 국내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생산혁신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신탄진 NGP 공장 확장은 지난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성장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KT&G는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함께 NGP·글로벌CC(글로벌 컬렉션·건기식)을 3대 핵심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성장전략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NGP 사업부문에서는 생산거점 확보 등 적극적인 사업 기회 포착을 통한 투자와 혁신으로 2027년 비권리사업(NGP·건기식 등)의 매출 비중을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BGF 대표이사 부회장에 홍정국 선임

신임 대표이사에 민승배 승진

BGF그룹은 2일 이사회를 열어 지구회사인 (주)BGF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는 홍정국 사장을 BGF 대표이사 부회장 겸 BGF리테일 부회장으로, (주)BGF리테일 민승배 영업개발부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승진하는 최고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정국 부회장은 2013년 BGF

그룹에 입사해 전략기획본부장, 경영전략부부장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주)BGF 대표이사 사장을 맡아왔다. 홍정국 부회장은 그룹 전반의 신성장 기반을 발굴하고 편의점 CU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왔다. 이번 인사로 그룹의 신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트렌드에 민감한 CVS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력 계열사에 대한 책임 경영을 보



홍정국

BGF 대표이사 부회장 겸 BGF리테일 부회장



민승배

BGF 리테일 대표이사

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BGF리테일 신임 민승배 대표이사는 28년간 BGF맨으로 한 우물만 판 편의점 전문가다. /신원선 기자

농심 '신라면 더 레드' 호응에 정식 출시

20일 출시, 내달 중순 용기면 선보

'지금까지 먹은 매운 라면을 모두 잊게 하는 중독적인 매운 맛'

농심은 지난 8월 한정판 제품으로 출시한 '신라면 더 레드'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자 오는 20일부로 정식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심 신라면 더 레드는 출시 80일 만에 1500만 봉 판매를 넘어섰다. 이는 올해 출시한 라면 신제품 중 가장 우수한 성적표다. 농심 관계자는 "더 매운 프리미엄 제품인 신라면 더 레드는 출시 초

반부터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재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12월 중순에는 용기면을 선보여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라면 더 레드를 맛볼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심 신라면 더 레드는 매운맛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스킵 지수가 7500SHU로 기존 신라면보다 약 2배 높은 제품이다. 수차례 시식평가와 소비자 평가를 거친 결과 지나치게 맵지 않으면서 신라면 고유의 감칠맛과 가장 잘 어울리는 스킵 지수가 7500SHU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신원선 기자